

# 보상주의 경영 통했다... 메리츠證, 실적 '사상최대'

당기순익 5개 분기 연속 1000억대  
1분기 당기순익 1414억... 37% ↑  
영업익 1659억, 세전이익 195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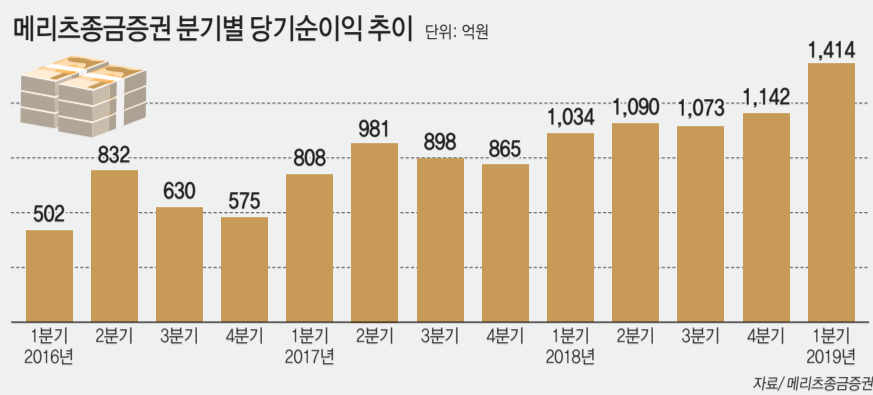
메리츠증권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5개 분기 연속 1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 16.3%로 높은 수익성도 증명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의 '실적주의' 경영방식이 시장에서 적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메리츠증권은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41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6%나 증가한 것이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8% 증가할 수 있다. 또 지난 4분기에 기록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순이익을 1분기만에 재차 경신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1분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각각 1659억원, 195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고 직전 분기보다 28.5% 늘었다. 세전이익 역시 각각 39.7%, 59.1% 상승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아울러 높은 수익성도 증명했다. 연결기준 전환산 ROE는 16.3%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3.7%포인트(p) 늘었다. 자기자본 3조원대 증권사가 6년 연속 두자릿수 ROE를 기록한 것은 최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기업금융(IB)부에서 인수금융·사모펀드·중소기업 신용공여 등 생산적 분야로 자본

을 공급하며 투자처를 다각화했고, 트레이딩·홀세일·리테일 등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한 것이 이번 호실적의 원인"이라며 "해외대체투자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0년 최

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대표가 된 후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취임 당시(2010년) 255억원에 불과하던 당기순이익은 2018년 4339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취임 당시 자기자본 역시 5000억원대에서 지난해 말 3조3649억원으로 점프해 업계 20위권에서 6위권으로 급성장했다.

최 부회장의 실적에 따른 보상주의 경영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 실력있는 '꾼'들이 메리츠증권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실한 '메리츠의 성과주의 전략'이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메리츠증권의 실적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KB자산운용 미국코어주식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KB 미국코어주식 목표전환펀드'를 출시한다. 이 펀드는 단위형 상품으로 오는 13일까지 KB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10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KB미국코어주식 목표전환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지수 및 나스닥(NASDAQ)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로 편입하며 시황에 따라 섹터 ETF에도 선별 투자할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 KB증권 '알고파' 서비스 시작

KB증권이 고객 스스로 매매 습관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매매패턴 분석 '알고파'(Algo-PA) 서비스를 시작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과거 2년간 매매를 건별로 분석해 고객의 매매패턴을 알려주면서 성과 향상을 위한 매매 원칙도 제시한다.

이 서비스는 ▲최근 2년간 손절관리, 분산투자, 이익관리 등을 확인하는 '종합진단' ▲매매유형과 손익비율을 보여주는 '매매유형분석' ▲우수고객과 성과를 비교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우수고객과 비교' 등으로 구성됐다. KB증권 고객은 누구나 홈페이지(HTS) '헤이블'(H-able)에서 이용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 스타트업 중심 투자... 작년 영업익 82억, 이익률 55%

## IPO 간담회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내일까지 수요예측, 13~14일 청약  
400만주 공모... 오는 23일 상장

지방 등 중소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업계 최고 수익률을 앞세워 코스닥시장 상장에도 도전한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신규 결성펀드에 출자비용을 확대하고 지분법이익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가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등 고르게 균형잡힌 투자로 성과를 지속적

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벤처캐피탈로 초기, 스타트업 중심의 투자와 기업 성장단계별 균형 잡힌 투자를 운용하는 회사다.

회사는 최근 5년 간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투자해 투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설립 이후 총 18개의 펀드를 결성했고 122개의 투자 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넷게임즈, 카버코리아, 안트로젠, 엔지캠생명과학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했으며 지방, 리더박스, 샌드박스네트워크, 브릿지바이오 등을 주요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다.

청산펀드수익률(IRR)은 17.1%으로 업계 평균 수치를 상회하며 누적 운

용자산(AUM) 규모는 4301억원이다.

회사는 설립 이후 12년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회수손익 895억원, 수익률 408.2%를 기록, 결산 수익금액 기준 벤처캐피탈 업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82억원, 당기순이익 62억원의 실적을 각각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55%를 달성, 동종업종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오는 8~9일 수요예측을 거쳐 13~14일 양일간 청약을 받은 후 23일에 상장할 계획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공모 주식 수는 400만주이고 공모 예정가는 주당 3600원~4000원선이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액은 144억~160억원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NH투자증권, 파주 농가 일손돕기 나서

파주 문산읍 당동2리와 결연  
임직원 60명 고추모종 등 심어

NH투자증권은 7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농가 지역을 방문하고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도농(都農)협동사업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고령화 등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는 NH투자증권이 2016년 5월부터 대표이사가 '명예이장'으로, 임직원들은 '명예주민'으로 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날 정영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전답 약 2500평에서 고추 모종심기와 사과 적과(열매숙기)작업 등을 했다. 작업 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통해 영농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농민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앞줄 오른쪽)과 임직원 60여명은 5월 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서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

기 일손 부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농협의 일원으로서 농촌 일손돕기에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을 준비 중이다"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매년 농가 지원을 위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2017년 가뭄피해 복구활동을 했으며, 작년에는 폭염피해 마을에 양수기를 지원하였다.

또 지난 2월에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강원도 산불피해 농민들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여름에도 영등포 쪽방촌 삼계탕 행사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계획 중이다. /손엄지 기자

# 금융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금감원, 현장서 쉽게 활용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수상자들의 교육사례 및 경험담 등을 담은 수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사례집은 수상자들의 다양한 '1사 1교 금융교육' 사례를 포함해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합리적인 소비방법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내용과 금융회사 영업점 체험, 금융상품 만들기, 금융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금융교육 체험사례를 포함했다.

특히 결연 신청 계기를 비롯해 금융교육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 향후 금융교육 계획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상미 기자 smahn1@